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도 전통의 뿌리 든든

‘책의 왕국’ 영국의 출판과 그 주변

영국 펄컨출판사의 포브스 왓슨 사장은 최근 미국 출판전문지 《퍼블리셔스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하반기 영국 출판시장을 ‘매우 안좋았다’고 묘사했다. 소설의 경우 가장 활발한 4주간의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액이 3천1백60만파운드(약 6천2백억원)에 머물러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판매액은 3.6% 총판매량은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국 출판계는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 진출한 미국 서점체인 보더즈가 적어도 12개 이상의 체인점을 개설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와 워터스톤을 합병해 영국 내 최대 서점체인으로 떠오른 WH 스미스와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영국 최대도매상인 버트랩스는 도서관 공급업체인 사이퍼와 합병을 발표해 도서정가제인 NBA가 사라진 영국 서점계는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이런 와중에 매주 서적판매 동향을 발표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출판전문지 《북셀러》의 지표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한 판매고는 미약하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누적된 판매고 역시 그 간격이 좁아지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인다. 2월 13일자 지표에 따르면 1주당 판매 부수는 2백여만부로, 판매고는 1천4백72만여파운드,페이퍼백을 포함한 평균가격은 7.06파운드(약 1만4천원)다.

출판산업

7조 2천억원 출판시장 세계 4위 규모로

영국에는 모두 3413개의 출판사와 3520여개의 서점이 있으며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3만9천명으로 그 중 잡지를 제외한 단행본 출판사 고용인원은 3만7천5백명이다. 영국의 주요 출판관련 이익단체로는 2백여사가 가입한 출판인협회(Publishers Association: PA)와 3천3백여사가 가입한 서적상협회(Bookellers Association: BA)가 있다. 영국통계청과 출판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지·인쇄·출판 분야 전체의 매출액은 1998년 현재 1천14억파운드고 그 중 해외수출액까지 포함한 도서판매액은 36억5천만파운드(약 7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규모는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4위권(《퍼블리셔스 위클리》의 집계)으로 일반도서는 19억파운드, 교과서와 학습서는 2억파운드, 학술서는 7억파운드 등으로 영국 내에서는 28억6천파운드의 매출액을 올렸고 해외판매액은 9억파운드, 저작권 수입은 1억2천만파운드로 집계됐다. 잡지의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는 1억파운드, 수출로는 4억파운드의 수입을 올렸다.

1998년 발간된 종수는 98,477종으로 소설이 8,869종, 비소설이 27,654종, 학술서가 50,883종, 아동서가 8,049종, 교과서와 학습서가 3,022종이다. 1990년 64,632종 발행에 이어 매년 증가추세였으나 1996년 101,504

종이 나온 뒤로 2년 연속 종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85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109% 성장했지만, 항목별로 비교하면 학술서가 136% 성장으로 가장 높았고 소설이 68% 성장으로 가장 낮았다. 종수와

관련한 영국출판의 특징은 영어교육관련도서(ELT)와 의학기술서(STM)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출판이 내재적으로 지닌 특성 때문이다.

세계문학에서 차지하는 영문학의 위치, 세계출판시장에서 영어도서의 강세, 그리고 영연방국가로의 수출 등 요인으로 영국 출판은 해외시장에 많이 의존한다. 영국문화원에서 발간한 《영어의 미래?》에 따르면 영어로 씌어진 도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8%로 두번째인 중국어에 두 배가 넘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서수출 총액은 92년 5억파운드에서 98년 9억파운드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영어교육 관련서로 91년 1억2천만파운드에서 97년 2억6천파운드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도서수출과 관련해 최근 영국 출판계는 아시아 경제위기와 파운드화 강세라는 두가지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 출판인 중에는 작년의 침체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영국 출판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

작할 수 있다.

서점

대형화된 영국 출판그룹과 서점체인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각 언론에는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 작은 규모의 소매 판매를 뜻하는 용어)’가 전혀 활기를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실렸다. 하지만 휘태이커 북트랙의 그래프를 보면, 97년 시즌을 완만하게 쫓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 역시 베스트셀러가 시장을 주도해 97년 시즌을 보면 상위 10권의 책이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장을 주도한 출판사는 순서대로 랜덤하우스·하퍼콜린스·펜킨·트랜스월드·BBC·호더 헤드라인·맥밀란·돌링 킨더슬리·리틀, 브라운·오리온·스콜라틱 등이다. 이중 펜킨은 롱맨·에디슨-웨슬리·파이낸셜 타임즈 등을 소유한 피어슨그룹이, 하퍼콜린스는 루퍼트 머독의 뉴스인터내셔널이, 리틀, 브라운은

역사의 손길 문은 책들과 함께

영국 서점의 풍경들

박용민 · 영국 엑시스터 서양사 박사과정

영국에 첫 방문한 여행자가 기념으로 몇권의 책을 사려한다면, 우선 쉽게는 시내에 나가 워터스톤과 딜론스같은 대형 서점의 체인화된 매장에 들러 볼 일이다.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책을 구하려면, 대학가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블랙웰(Blackwell)을 찾는 쪽이 낫을 것이다.

이들 대형서점의 체인망은 영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비슷한 분위기의 외관과 진열 방식을 채택해,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 책을 살 수 있다. 베스트셀러와 학술서적들, 여행 서적, 그리고 컴퓨터서적까지, 이들 대형서점의 책장은 일견 한국의 대형서점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진열과 분류 방식을 따른 책들로 꽂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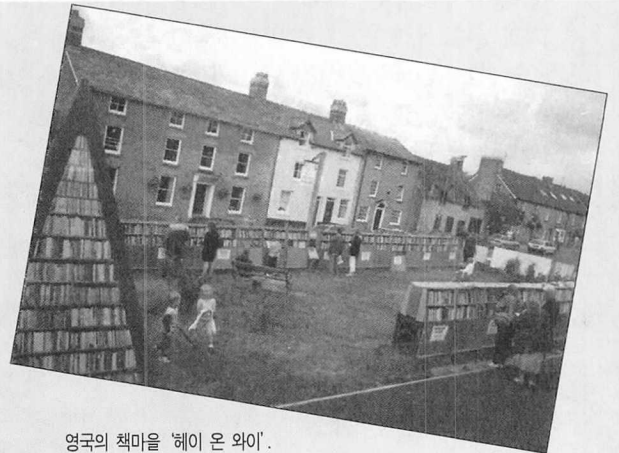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영국인들의 관심사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집과 특히 정원 꾸미기, 그리고 야생 동물과 자연보호에

관한 책들이 각각 독립된 주제로 책장을 메우고 있는가 하면, 다양한 연감류들이 베스트셀러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자신감을 반

영하듯이 전쟁에 관한 책들이 벽 한면을 가득 채우고 있기도 하다. 아동서적의 다양함과 화려함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영어 사용권과 그 출판시장의 거대함을 고려하면, 아무리 큰 서점이라도 모든 책의 구색을 갖추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고, 영국인들에게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고 평균 10일 정도 기다리는 일은 책사기의 당연한 과정이다.

문제는 책의 가격이다. 평범한 장정의 책 한권 값이 13~4 파운드, 조금 눈에 띄는 화려한 책이라면 20~40 파운드, 즉 우리 돈으로 3만~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판이니,



영국의 책마을 '헤이 온 와이'.

어지간히 욕심나는 책이 아니어서는 손이 나가기 어렵다. 상설 할인서점들(‘Booksale’ 혹은 ‘County Bookshop’)이나, 헌 책방(Second-hand Bookshop), 그리고 WH 스미스같은 문구용품점에서의 할인된 아동서적, 참고서 코너 등은 영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전문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해볼 만한 것들이다.

영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책사기의 다른 형태는 북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SF나 로맨스 소설에서 집꾸미기, 역사 등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책들을 일정량 구입하기로 약속하면, 정가의 60~90%정도까지 할인받

워너북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트랜스월드
는 코기·밴텀·블랙스완·더블데이 등의
자회사를 가진 출판그룹이라 대형출판그룹
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서점체인 역시
대기업화됐다. 영국의 대형서점체인은 445
곳의 지점을 가진 WH 스미스, 112곳의 지
점을 가진 워터스톤즈(WH 스미스 소유),
100곳의 지점을 가진 맨지즈, 91곳의 지점
을 가진 마틴 리테일 그룹, 87곳의 지점을
가진 딜론스(EMI 소유) 등이 있다. 1998년
현재 이 중 WH 스미스, 워터스톤즈, 맨지
즈, 딜론스가 전체의 38.1퍼센트를 판매해
도서시장이 대형서점체인 위주로 형성됐음
을 알 수 있다.

최근 활발해진 인스합병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1백년
가까운 전통의 도서정가제인 NBA(Net
Book Agreement)가 붕괴됐다는 점이다.
출판시장이 베스트셀러 위주로 재편되고 미
국계 대형서점이 할인판매를 주무기로 들고



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즈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빅벤(자료사진/영국문화원 협찬).

을 수 있다.

현 책방 순례는 책사기에서 빼 놓을 수 없
는 즐거움이지만, 특히 영국처럼 인쇄 출판
의 근대적 역사가 일찍 시작된 나라에서라
면, 헌책방에서 뜻하지 않은 즐거움을 맛보
기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초서 생전에
간행된 <캔터베리 이야기>의 5판본을 안티크
숍에서 산다면 복권 당첨되는 행운이겠지만,
백 수십년 된 셰익스피어 전집을 길거리 서
점이나 베품시장에서 단돈 15파운드에 구하
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수백년 된 고서를 대하는 영국인들의 태도
는 조상의 문집을 간직하는 우리와 다를 것
이 없지만, 그들에게 책이란 수집품일 뿐만
아니라, 사서 읽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독서
의 실 수요자에게 다시 넘겨지게 되는 물건
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새롭게 구매된 책들의 정리를 위해 공공도
서관에서 대량으로 밀려나온, 수년에서 수십
년된 책들을 영국의 길거리 서점에서 사보면
서, 그 가치도 의심스럽고, 수십년간 아무에게
도 읽혀지지 않는 책들을 정리도 안된 상태에
서 잔뜩 끌어안은 채, 장서 수만 늘리려고 애
쓰는 한국의 도서관들을 떠올리게 된다. ❖

나온 데다 독점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국이
문제삼기 시작한 96년 이후 NBA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할인판매가 거대출판그룹과
대형서점체인의 이익만을 보장한다는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여서 소규모 독립출판사들
의 반발도 심해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서로 지켜나가는 상태다.

도서 판매 경로를 보면, 서점(35%), 문구점
(20%), 북클럽(11%), 우편판매와 슈퍼마켓
(각 7%)순으로 나와 북클럽 등 우편판매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
서적상협회가 제시한 표준거래안을 보면 출
판사는 50%에 도매상에 넘기는데, 이중 제
작비(17%), 인쇄(10%), 배본·마케팅비
(8%), 출판사 경비(10%)를 제외하면 출판사
는 순이익 5%를 취한다. 도매상은 소매상에
15%의 마진을 남기고 넘긴다. 소매상은 직
원 경비가 18%, 창고비가 5%, 잡비가 10%
로 순이익은 2%를 챙기는 것으로 돼있다.

도서관

한해 도서관 대출건수 5억3천7백만회

영국의 각 지방정부는 도서관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책을 무료로 대여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 숫자는 5천곳을 넘는데, 고용된
인원은 2만7천명에 달한다. 영국 성인의
60%는 각 지역도서관의 회원이며 그 중 반
이 넘는 숫자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책을 대
여해 1996년에서 97년 사이 영국 공공도서
관에서 대출된 도서는 5억 2백만권, 오디오
·비디오·기타 아이템은 3천5백여건이었
다. 영국 정부는 2002년까지 모든 공공도서
관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IT네트워크
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 네트워크가 제공하
는 PC·CD롬·참고데이터를 통해 도서관
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영국 도서관 운영제도 중 특이한 것은 '공
공대여권리안(Public Lending Right
Scheme)'이다. 등록된 저지들에 한해 영국
내 공공도서관에서 그들의 책이 대출될 때,
조성된 기금에서 저작권료를 주는 제도로
98년에서 99년 사이 이 액수는 4백 90만파
운드에 달했다. 지불은 대외회수에 따라 결
정되며 한 작가에게 한해 6천파운드 이상 넘
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96년에서 97년 사
이 가장 많이 대출된 작가는 캐더린 쿡슨·

다니엘 스틸·딕 프랜시스·루스 랜들·애
거서 크리스티·잭 히긴스 등으로 나타나
영국인들 역시 베스트셀러 위주로 독서하지
만 미국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
영도서관(British Library)이다. 1753년 설
립돼 현재 소장종수만 모두 1억5천만종에
달하는 세계적인 도서관이다. 영국 내 출판
업자들은 신간이 나올 때마다 한 권씩 의무
적으로 대영도서관에 보내야 한다. 96년과
97년 사이 대영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도서
와 아이템은 2백40만종이 넘었고 도서목록
에는 새로이 1백만종이 추가됐다. 매년 47만
5천명이 이용하는 대영도서관은 1998년 6월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의 새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마그나카르타와 셰익스피어의 첫번
째 폴리오 등 진귀한 책도 항상 전시해 많
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김연수 기자